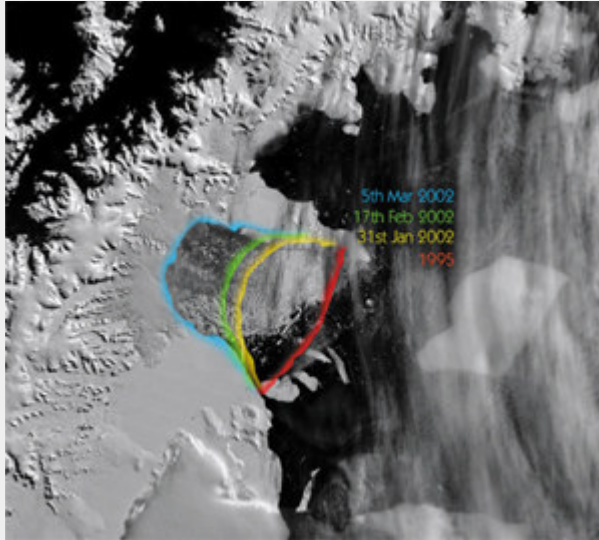


## “기후 대재앙, 10년 안에 닥친다”

기후 변동의 충격파가 지구 환경은 물론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후 대재앙이 현실화하며 기후 변동이 아니라 기후 적응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및 개도국은 기후 적응 방법론에서 큰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AP연합

남극 빙산이 녹아 없어지는 광경을 연도 별로 나타낸 위성 사진

온난화 등 기후 변동의 원인 물질을 줄이는 방안을 둘러싼 입씨름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동과 함께 어울려 살 각오를 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극 빙산이 녹는 것 따위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설마 설마 하던 기후 대재앙이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후 변동이 아니라 기후 적응이다. 천재 지변이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이냐 하는, 이른바 ‘기후 적응’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환경 관련 민간 기구 펠랑기연구소의 아구스 싸리 사무국장의 외침이다. “기후 변동은 지금 여기의 문제다. 만약 (영향을) 줄이지 못한다면, 가난하고 취약한 개도국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가며 거대한 물리적·사회 경제적 충격을 던져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동 문제의 축소판이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세기 중반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전체 소득의 10% 이상이 기후 변동으로 날아갈 것이다.”

싸리 박사는 지난 3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가 ‘기후 적응 기금’을 만들자고 국제 사회에 제안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제 국제 사회는 지구

## “기후 변동과 어울려 살 각오 해야”

지난 2월 말 영국 <업저버>의 보도를 통해 일부가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한 보고서(상자 기사 참조)는 훨씬 더 극단적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민간 두뇌 집단인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업저버>에 소개된 보고서의 핵심은 최악의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 변동에 의한 재앙이 지구를 덮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졌으니, 미국이여 대비하라’고 충고한다. 기후 적응 문제는 테러 근절이나 석유 확보 못지 않은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선언이다. 이 보고서를 과학이나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고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기후 변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통념은 지구가 서서히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효과도 앞으로 50~100년 뒤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들간 마비시키며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냈던 지난 3월 초의 폭설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기상 이변은 이같은 상황에서 말



□AP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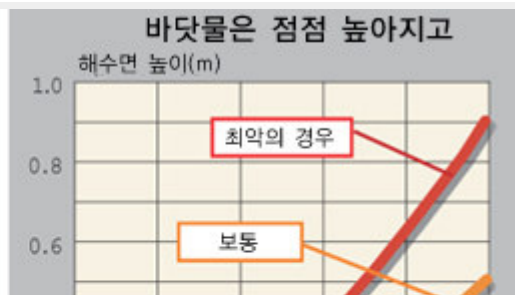
지난해 발생한 독일의 대홍수. 기상 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그대로 '예외적인 이변'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나 보고서는 이같은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동의 현재 상황을 '한창 온도가 오르고 있는 물'이 아니라 이미 '온도가 오를 대로 올라 끓기 직전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많으므로 지금부터 노력하면 기후 변동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념에 대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고서는 '위험한 자기 기만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학자들은 최근 기후 변동의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얼음덩어리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얼음층을 분석한 결과, 약 8천2백년 전 지구의 기후가 그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더워졌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류의 변화 때문이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해수는 팽창한다. 오랜 기간 계속된 해수의 팽창은 어느 순간 해류의 방향을 바꾸어놓는다. 8천2백년 전 온난한 기후가 갑자기 추워진 것은 이처럼 갑자기 해류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8천2백년 전 상황의 재판이라면, 1차 재앙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당장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내다본다. 온난한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멕시코 만 해류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들 지역에 추위가 몰아닥치고 강설량이 줄어 가뭄이 나타나는 한편, 바람이 거세지고 바닷물이 불어나 해이그를 비롯한 해양 도시들이 모두 잠긴다는 것이다. 시점은 바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기후 변동에 따른 재앙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북부 지역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대서양 지역과 더불어 북아시아 지역에

이처럼 기후 변동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와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기후에 적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미국은 현재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사실 자체도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장서서 추진해온 유럽연합과 대다수 과학자 집단은 이산화탄소가말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므로 이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과 유럽 및 개도국, 한판 힘겨루기

이같은 견해차는 기후 적응 대책에서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상징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각자 살 길을 찾자’는 것이다. 반면 유럽이나 개발도상국 등 교토 의정서 추진 진영은 기후적응기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식량 폭동 지역 분쟁 핵전쟁 발발 위험성 등 기후 변동의 ‘임박한 위협’을 미국은 물론 중국 방글라데시 동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와 지역 별로 나누어 면밀히 고찰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는 ‘국제 협력’이라는 표현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보고서가 이런저런 시나리오 끝에 내놓은 기후 적응 방안은 식량이나 물을 확보하기 위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국방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동판 일방주의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계 일각에서는 온난화 물질 배출 규제 방법론에 대해 세계 각국이 비용을 각출해 주요 해당국을 지원하는 ‘마셜 플랜 식’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교토 의정서 추진 그룹은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고 보고, 교토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첫걸음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임박한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동특별기금 최빈국기금 등 세계적 차원의 ‘적응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제주도 환경 포럼에서 기후 적응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인도네시아 과학자 아구스 싸리 박사다.

어느 쪽이 옳든 기후 적응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주의와, 유럽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파가 한판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입씨름’은 어쩌면 인류의 운명을 둘러싼 최후의 일전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논쟁을 오래 지속하기에는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snype00@sisapress.com](mailto:snype00@sisapress.com)

기사 전문은 발매 중인 <시사저널> 754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과 정기독자 회원은 로그인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2004/04/08 754 호 ]

